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달러 랠리 '티핑 포인트' 가까워졌나?
 - ◇ (초점)-일본의 엔 매수 개입, 어떻게 작동하나
 - ◇ (초점)-외화채 연이은 5년물 발행 실패 VS 자산스왑 점증
 - ◇ (긴급시장진단)-위안 강타에 한 달 만에 연고점 갈아치운 달러/원..다음 레벨은?

.....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에서 방역 복장을 한 사람이 문틈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로이터/앤드류 갤브레이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2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39.1	-0.8%	-4.1%	-8.6%	유로	1.0795	-0.1%	-5.1%	-6.9%
100엔 대비	967.7	0.5%	6.7%	+1.8%	엔	128.58	-1.7%	-10.5%	-10.3%
유로 대비	1,343.1	-1.1%	0.6%	-1.9%	위안	6.5016	-2.0%	-2.3%	+2.7%
위안 대비	191.37	0.8%	-2.3%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811.40	-1.9%	-7.0%	+18.7%
코스피	2,704.71	0.3%	-9.2%	+3.6%	나스닥	12,839.29	-3.8%	-17.9%	+21.4%
코스닥	922.78	-0.2%	-10.8%	+6.8%	S&P500	4,271.78	-2.8%	-10.4%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59.24	-3.1%	-11.2%	-4.9%
국고채 3Y	2.971%	2.7bp	117.3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219%	5.3bp	120.8bp	+67.6bp	미국채 2Y	2.680%	23.0bp	195.0bp	+61.0bp
국고채 10Y	3.314%	1.3bp	106.4bp	+53.7bp	미국채 10Y	2.900%	7.0bp	139.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01.75	-4.5%	34.9%	+55.8%	한국 5Y	33.4bp	2.0bp	11.3bp	-0.7bp
금(현물)	1,930.73	-2.2%	5.6%	-3.6%	일본 5Y	18.1bp	-0.1bp	0.5bp	+2.1bp
TR상품지수	3,982.53	0.6%	19.3%	+24.6%	중국 5Y	70.2bp	2.0bp	29.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25일(월)>

- 한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이슈노트)(12:00)

<26일(화)>

- 금감원, 3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06:00)
- 한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한은, 1분기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12:00)

<27일(수)>

- 한은,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금융위,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등 개정(배포시)(12:00)
- 통계청, 2월 인구동향 · 3월 국내인구이동(12:00)

<28일(목)>

- 한은,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08:00)
- KDI 현안분석 '주거비 변화와 주택공급'(12:00)
- 한은, 논고 '원자재가격 변동요인별 물가 영향 분석'(12:00)
- 한은,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4월 발행 실적(17:00)

<29일(금)>

-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09:10)
- 한은,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국민연금, 제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14: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25일(월)>

- 미국 3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4월 달러스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 총재, 의회 금융위원회 증언 (자정)

- 호주 휴장

<26일(화)>

- 일본 3월 실업률 (08:30)
- 미국 3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3월 내구재주문 (21:3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4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21:30)
- 미국 2월 FHFA ·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3월 신규주택 판매 (23:00)

<27일(수)>

- 중국 2월 산업이익 (10:30)
- BOJ, 통화정책회의 (28일까지)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도소매재고 수정치 (21:30)
- 미국 3월 잠정주택판매지수 (23:00)
- BIS · 영란은행 · ECB · IMF 화상 컨퍼런스 (~28일)

<2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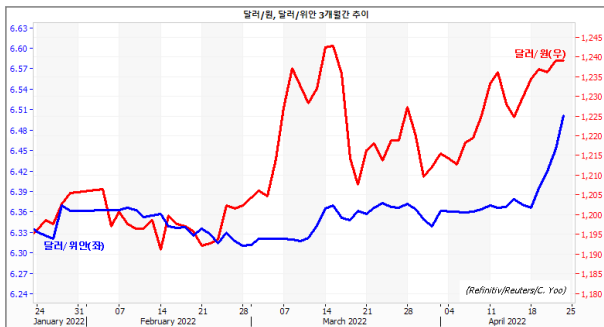
- 일본 3월 산업생산 잠정치 · 소매판매 (08:50)
- BOJ, 금리 결정 및 분기 전망보고서 발표
- 일본 3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4:00)
-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 발표 (16:30)
- 유로존 4월 기업환경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 신뢰지수 최종치 (18:00)
- 미국 1분기 GDP 속보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4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9일(금)>

- 유로존 3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7:00)
- 유로존 4월 CPI (18:00)
- 유로존 1분기 GDP 속보치 (18:00)
- 미국 3월 개인소득 · 근원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1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4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23:00)
- 일본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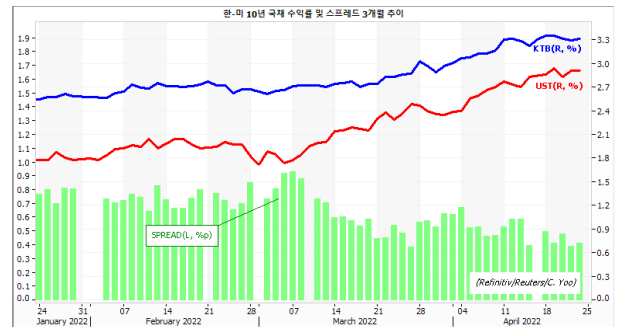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전방위적인 달러 강세 압력에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30-1260 원이다.
- 미국 통화 긴축의 차별화가 국제 외환시장의 핵심 재료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유로, 엔에 이어 위안 약세까지 더해지면서 원 약세 변동성은 찾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5월 정책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번 주는 주중 나올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을 비롯해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엔저 저지를 위해 공동 개입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일본 정부 관리가 부인하면서 엔저 재개와 일본 정부의 개입 여부는 외환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지난주부터 갑자기 약세 보폭을 키우고 있는 위안 행보도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위안 약세 재료가 원화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재료일 수 있는 만큼 중국 발 리스크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수급상 외인 배당 역송금 수요도 여전히 감안해야 한다. 금주는 약 1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 배당 지급이 예정돼 있다.
-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에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대외 분위기가 꺾이지 않으면 개입 효과는 금방 묻힐 수 있다.
- 국내 발표 주요 지표로는 1분기 GDP 속보치와 3월 산업생산 등이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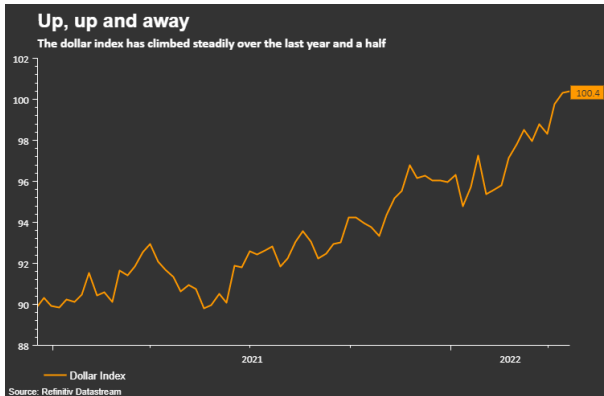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FOMC 회의의 한 주 앞둔 경계감 속에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레인지 트레이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긴 어려워 보인다.
- 연준은 통화정책의 고삐를 늦춰야 할 때 그렇지 못했고 미국 경제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셰일 업체들의 존재가 석유, 가스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강력한 수요측 압박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 유탄을 맞고 있는 건 채권시장이다. 미국 채권시장은 이미 5월과 6월, 7월에 기준금리가 50bp씩 인상되고 그 이후엔 매번 정책회의 때마다 25bp씩 인상되는 걸 반영하고 있다.
- 지난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 레벨에 근접한 후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다.
- 한국은 조금 다르다. 통화당국은 이미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현재 국내 물가 상승에는 공급측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의 경기 펀더멘탈 역시 차이가 있다.
- 국내 시장 참가자들도 3년물 기준 3%대를 금리상단으로 레인지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오는 26일 한국은행은 1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2월의 3.0%에서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1분기 GDP 수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 28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 역시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한국의 3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오고 30일에는 중국의 4월 국가통계국 PMI와 중국의 4월 차이신 PMI가 발표된다.

(초점)-달러 랠리 '티핑 포인트' 가까워졌다

4월 22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긴축 시 달러의 거래 패턴을 보면 벌써 몇 달째인 달러 랠리도 이제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리라는 전망 등에 지난 1년간 달러는 통화 바스켓 대비 약 7% 올라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과거 네 차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나타난 달러 움직임과 대체로 일치한다. 지난 사례에서 달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12개월간 평균 2.2%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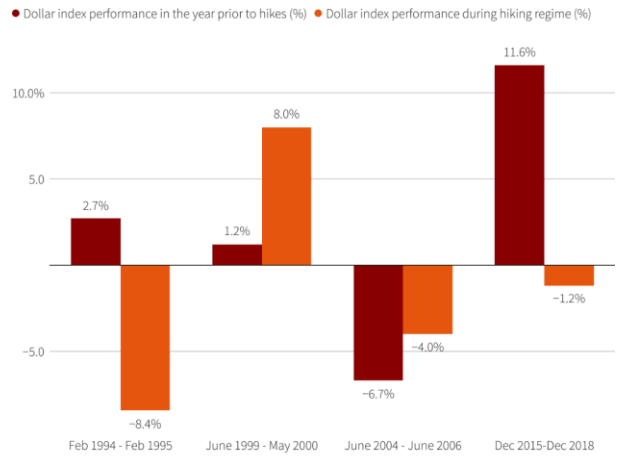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피티브 데이터를 로이터가 분석해 보니 네 번 중 세 번은 금리 인상 기간에 달러지수가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평균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간스탠리웰스매니지먼트 리사 샬렛 CIO는 "달러가 위쪽으로 오버슈팅해 8-9년 전 수준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티핑 포인트에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Fed hiking regimes and the U.S. do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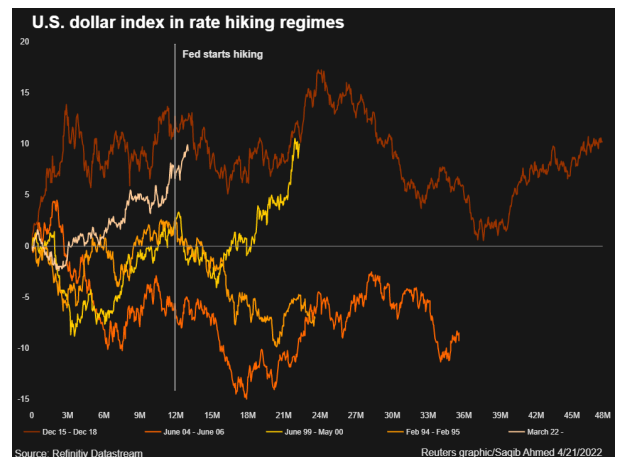


Note: U.S. dollar index performance from the day of the first hike to the last day of a rate hike for each of the last four major hiking regimes
Source: Refinitiv Eikon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연준 긴축 전망이 1994-95년의 금리 경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책금리를 300bp 인상하며 수십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상 사이클을 이끈 바 있다. 연준은 지난 3월 25bp 인상을 했고, 투자자들은 내년 2월까지 약 260bp의 누적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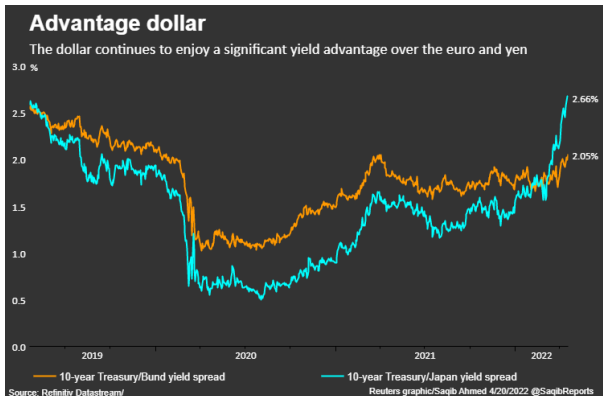
최근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달러 지수가 1994년 첫 인상 이전 몇 달간 상승했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수익률 격차가 좁혀지면서 인상이 끝날 즈음에는 8.4%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미국 국채와 외국 국채 수익률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을 공격적으로 가져가거나 미국의 경제지표에서 성장 둔화가 감지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정책 결정권자들은 최근 매파적인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뱅크 총재는 21일 유럽중앙은행(ECB)이 3분기 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파 후보 마린 르펜을 꺾으면 올해 들어 달러 대비 4.7% 절하된 유로에 역풍이 줄어 들 수 있다. 한편 엔 가치는 달러 대비 20년 만의 최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모멘텀이 달러의 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지수는 4월 들어 2.3% 상승하며 2021년 6월 이후 최고 월간 성적을 향하고 있다. 지수는 2년 만의 최장 기간인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속적인 달러 강세는 투자자나 기업, 정부에게 있어 장단점이 있다. 달러 강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통화가 약세인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달러 강세는 해외 매출을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프록터앤갬블(P&G)과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환율 역풍을 언급한 바 있다.

모간스탠리의 샬럿은 "달러 강세가 이익의 환전과 국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지점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달러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스티브 잉글랜드 G10 FX 리서치 헤드는 달러가 앞으로 몇 달간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도중, 특히 다른 중앙은행들의 긴축 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그건 올 하반기나 2023년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초점)- 일본의 엔 매수 개입, 어떻게 작동하나

도쿄, 4월 19일 (로이터) -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달러 대비 20여 년 만의 최저치로 하락한 엔 약세로 임금 성장세가 더딘 시기에 생활비가 늘어나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 정책당국자들이 급격한 엔 절하에 대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엔 약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도 급격한 엔 절하는 기업들의 경영계획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이번 주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미국과 환율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따로 만나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은 구두 개입 외에 과도한 엔 절하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 그 중에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엔을 대규모 매수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엔 매수 개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 언제 마지막으로 엔 매수 개입을 실시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급격한 엔 절상을 막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왔고, 엔 절하시에는 보통 손을 대지 않았다.

엔 매수 개입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일본이 엔을 지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입한 것은 아시아 금융

위기로 엔 매도와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던 1998년이다. 그 이전에는 1991-1992년 엔 절하를 막기 위한 개입이 있었다.

◆ 다시 엔 매수에 나서게 할 계기는?

환시 개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규모의 세계 외환시장에서 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패하기가 쉽다.

이는 구두 개입이 엔 가치의 자유 낙하를 막지 못했을 때에만 사용할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단순히 환율 수준이 아니라 엔 절하 속도가 당국의 개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재무성 재무관은 로이터에 달러/엔이 130 엔 위로 상승하면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정책당국자들은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자본 유출 사태와 유사하게 일본이 엔과 증시, 채권 등 '트리플' 매도에 직면할 때에만 개입이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엔 매수 개입, 어떻게 이뤄지나

재무성이 엔 절상을 잡기 위해 개입할 때에는 단기 채를 발행해 조달한 엔을 시장에 매도해 엔 가치를 낮춘다.

엔 절하를 막기 위한 개입시에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매도해 엔을 매수해야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재무상이 개입하라는 최종 지시를 내려야하며, BOJ가 대리인으로 나서 시장에서 지시를 이행한다.

◆ 환시 개입, 난관은?

엔 매수 개입은 엔 매도보다 훨씬 어렵다.

달러 매도, 엔 매수 개입시 일본은 외환보유고에 손을 대야한다. 이는 곧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엔 매도 개입과 달리 개입 지속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조 3560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져있다. 충분한 규모이지만 당국이 개입할 때마다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막대한 액수가 필요하다면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든 가능성이 있다.

환시 개입은 또 G7 국가들, 특히 달러/엔에 대해 개입을 하려면 미국의 비공식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보통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큰 경우가 아니면 환시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초점)-외화채 연이은 5년물 발행 실패 VS 자산스왑 점증..크로스 수급 균형 변화 조짐

서울, 4월 2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로 글로벌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관들이 만기 5년 이상 외화채 발행 수요 확보에 연달아 실패하고 있다.

한국물 외화채 발행이 3년 테너로 집중되면서 장기 부채 스왑 기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자산 스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통화 스왑(CRS) 수급 균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물 외화채 5년물 발행 '난항'..부채스왑 단기화

21일 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날 3억 5천만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을 확정했다. 트랜치(tranche)는 3년 고정금리부채권(FXD)이다. 가산금리는 미국 국채 3년 금리에 80bp를 더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전날 원화 CRS 시장 마감 후 부채 스왑 비딩도 원활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발행액이 통상 수준인 5억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 것을 감안하면 부진 꼬리표를 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당초 3년, 5년물 발행을 계획했다가 결국 3년 고정금리부채권으로만 발행한 부분도 수요 확보가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내 기관들은 최근 외화채 투자 수요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미래에셋투자증권은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 만기 달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하던 도중 발행 계획을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수요 부진으로 최초 제시금리(IPG·Initial

Pricing Guidance)를 하향 조정한 후에도 결국 발행을 취소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CRS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나마 가능한 발행 테너가 3년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외화채 발행에 나섰던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처음에 계획했던 5년물 수요 확보가 여의치 않자 결국 3년물로 발행해야 했다. 당초 주공이 10억~11억유로 규모로 잡았던 발행 규모 역시 계획의 절반 수준인 6억유로로 축소됐다.

CRS 시장은 이달 들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의 외화채 발행 기대 속 비드 우위 흐름을 이어왔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흐름 속에 외화채 발행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채 스왑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외화채 발행과 부채 스왑 테너가 모두 3년으로 집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수급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 주에는 KB 카드와 한국동서발전이 외화채 발행에 나서고, 다음 달 초에도 한국도로공사의 외화채 발행이 예정돼 있지만 부채 스왑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자산스왑, 비수기에도 꾸준히 증가..크로스 수급 균형 변화나?

반면 지난달까지 부진했던 자산 스왑은 최근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에 근접한 가운데 글로벌 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보험사들이 활발히 태핑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번 주 들어 CRS를 통한 헤지 비용이 크게 오를 여파로 원화 환산 수익률이 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절대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외화채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보험사 채권운용부장은 "지난달까지는 외화 채권을 팔기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가 거의 다 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로 오를 여지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입장에서 원화 환산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수익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애플이 발행한 30년물 회사채를 거의 4%에 근접해 있는데 원화 부채 대비 프리미엄이 덜 나와도 충분히 살 만큼 매력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부채 스왑 파이프라인 기대에 따른 일방적 비드 우위 장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1분기 내내 부진했던 자산 스왑 플로우의 반전이 이어질 것이냐가 향후 CRS 금리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B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최근 들어 자산 스왑 플로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자산 스왑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닌데 금리가 오를 때는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막상 빠지기 시작하니 뒤늦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부채 스왑 물량은 예상보다 줄어들 듯하고 만기도 짧아지고 있어 시장 전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C 국내 은행 스왑 딜러는 "자산 스왑이 딱히 엄청 늘었다는 느낌은 아니고 연초보다 좀 늘어난 정도 아닌가 싶다"며 "다만 옛날과 달라진 건 고객들이 동시 비딩을 하지 않고 은행마다 고객 라인이 뿔뿔하다 보니 잘 모르는 물량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스왑 신규 태핑은 확실히 늘고 있다"며 "부채 스왑의 경우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미리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시장진단)-위안 강타에 한 달 만에 연고점 갈아치운 달러/원..다음 레벨은?

서울, 4월 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지난 3월 중순에 기록했던 연고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22일 달러/원 환율은 1245원 선까지 올라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쳤던 2020년 3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달러/원 환율이 2년 만의 최고치로 오른 데에는 대외 불안 요인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 달러에 이은 위안 타격..수급은 한층 '빡빡'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가파르게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5월 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다 향후 빠른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상 등 연준의 긴축 속도와 강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 급등을 촉발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8년 말 이후 처음으로 3%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고, 달러지수는 2년 만에 101 선을 넘어섰다.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이는 미국에 비해 여타 주요 국가들은 경제 하방 위험 때문에 긴축으로 향한 발걸음이 무겁다. 그렇다 보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인 유로에 이어 대대적인 부양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엔은 달러에 대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유로는 연중 달러 대비 4%대, 엔은 11%대 급락 중이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시장이 미국 연준 긴축을 반영해왔지만 선반영됐다는 생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연준 회의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려 긴축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원화는 약세를 부추기는 대외자료들에 한층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시장반영이 이뤄지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자극되는 모양새다. 역외 달러/위안은 작년 8월 이후 올라 처음으로 6.5 위안대로 올라섰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부양 기조가 미온적이라는 점은 경기 경착륙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국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빅 테크 규제와 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중국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역시 중국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원화 약세를 설명하는 데 있어 타이트한 수급을 빼놓을 수 없다.

4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원어치 물량을 쏟아냈고, 계절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 지급에 따른 역송금 수요까지 외환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졌다. 물론 국내 중공업 수주에 따른 달러 공급도 있었지만, 20일까지 무역수지가 50억달러대 적자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역내 외환수급 사정은 녹록지 않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달러를 사야 하는 사람은 사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 다음 달러/원 상단은 어디?

달러/원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1265 원 선을 다음 고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버슈팅으로 1280 원대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열어 두고 있다.

위의 B 은행 외환 딜러는 "엔 흐름을 이제 위안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한다. 달러/원은 1265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C 은행 외환 딜러는 "중국 리스크가 가장 큰데 연고점이 뚫리면 일단 1280 원까지는 오버슈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알림: 뉴스레터 이메일 서비스 종료

저희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가 주간 뉴스레터 배포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에 따라 이메일 서비스는 이번 주 종료되며, 다음 뉴스레터는 레피니티브 아이콘 단말기로 계속 제공됩니다.

그동안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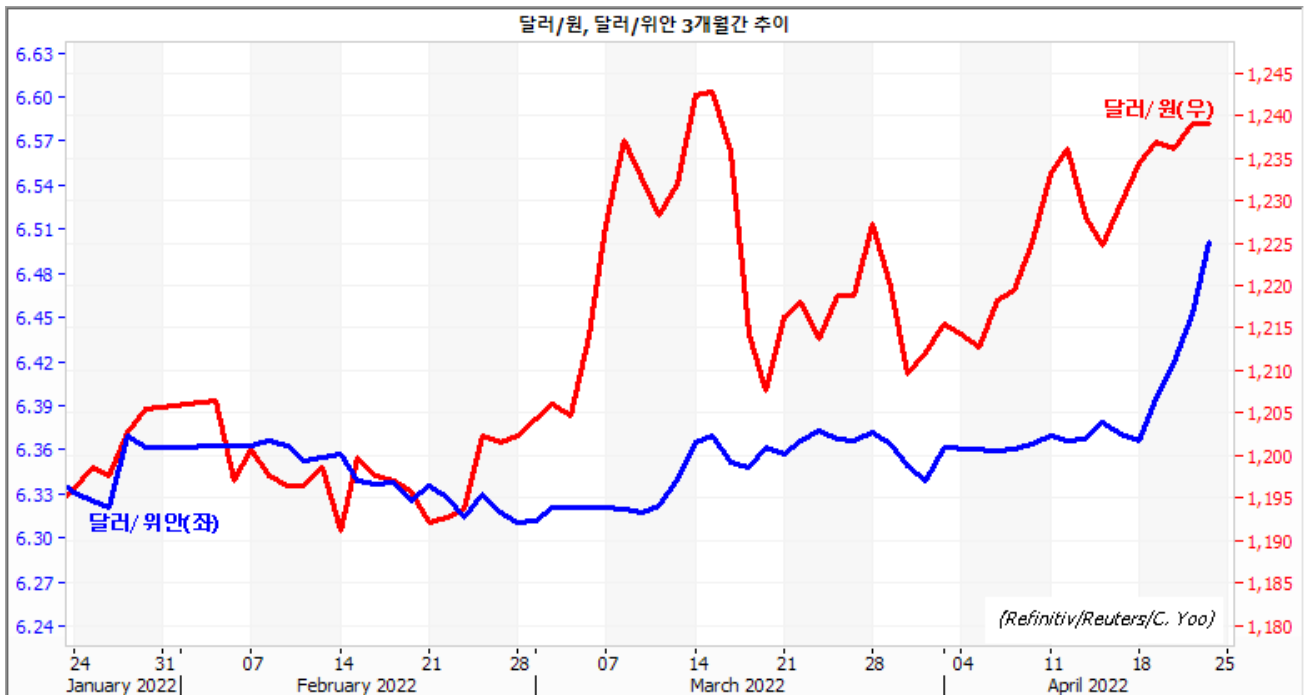
오는 5월 이후 로이터 뉴스레터 구독에 관한 사항은 레피니티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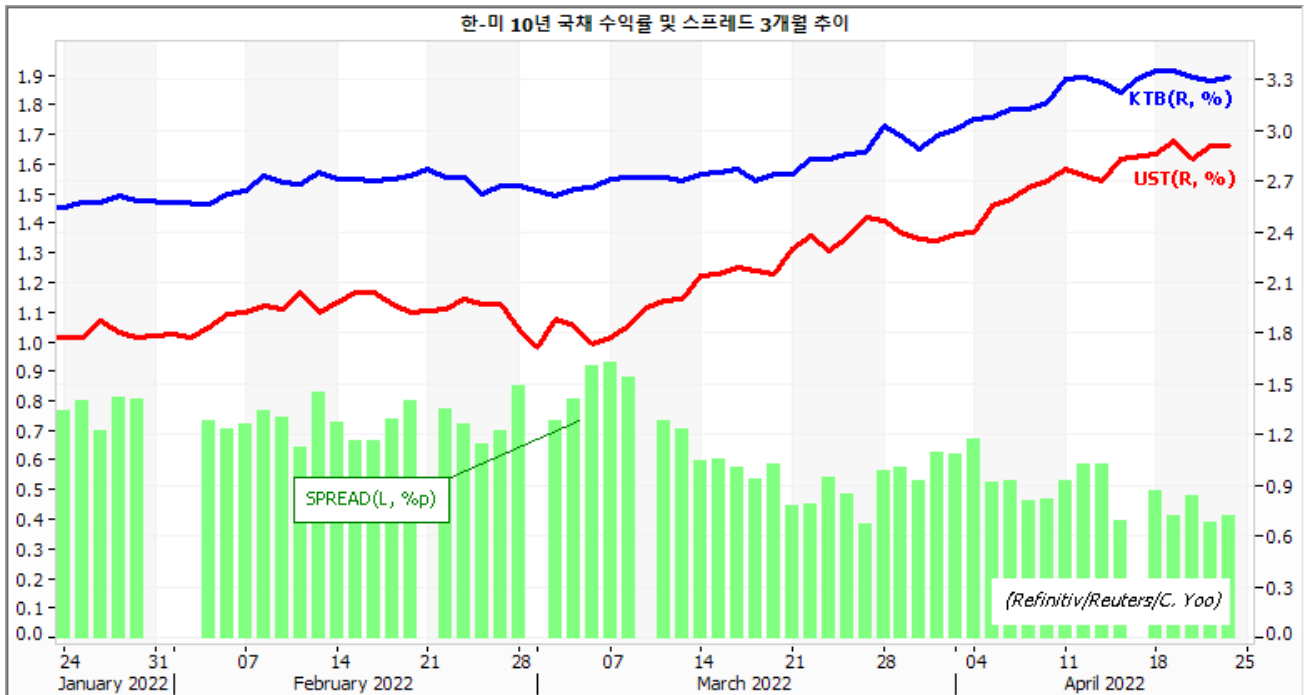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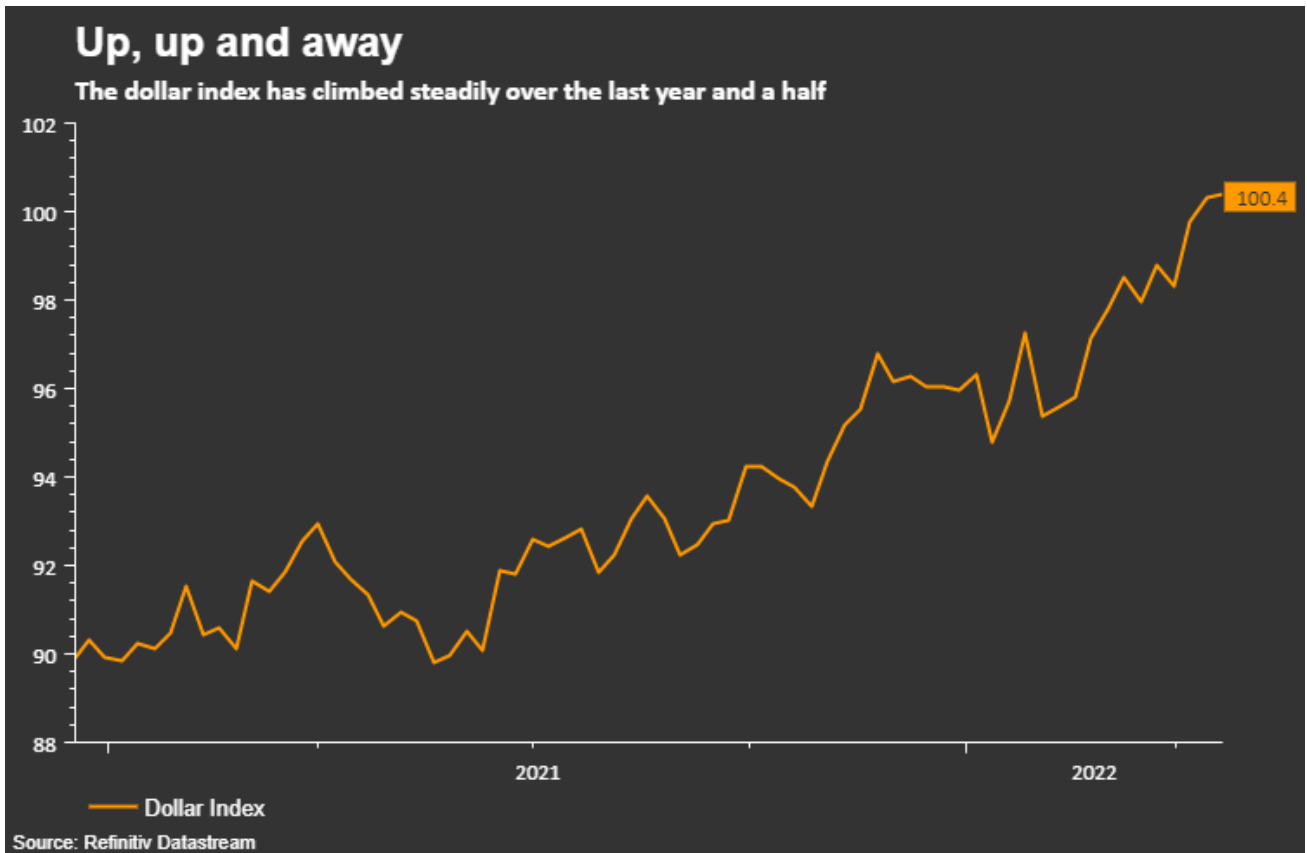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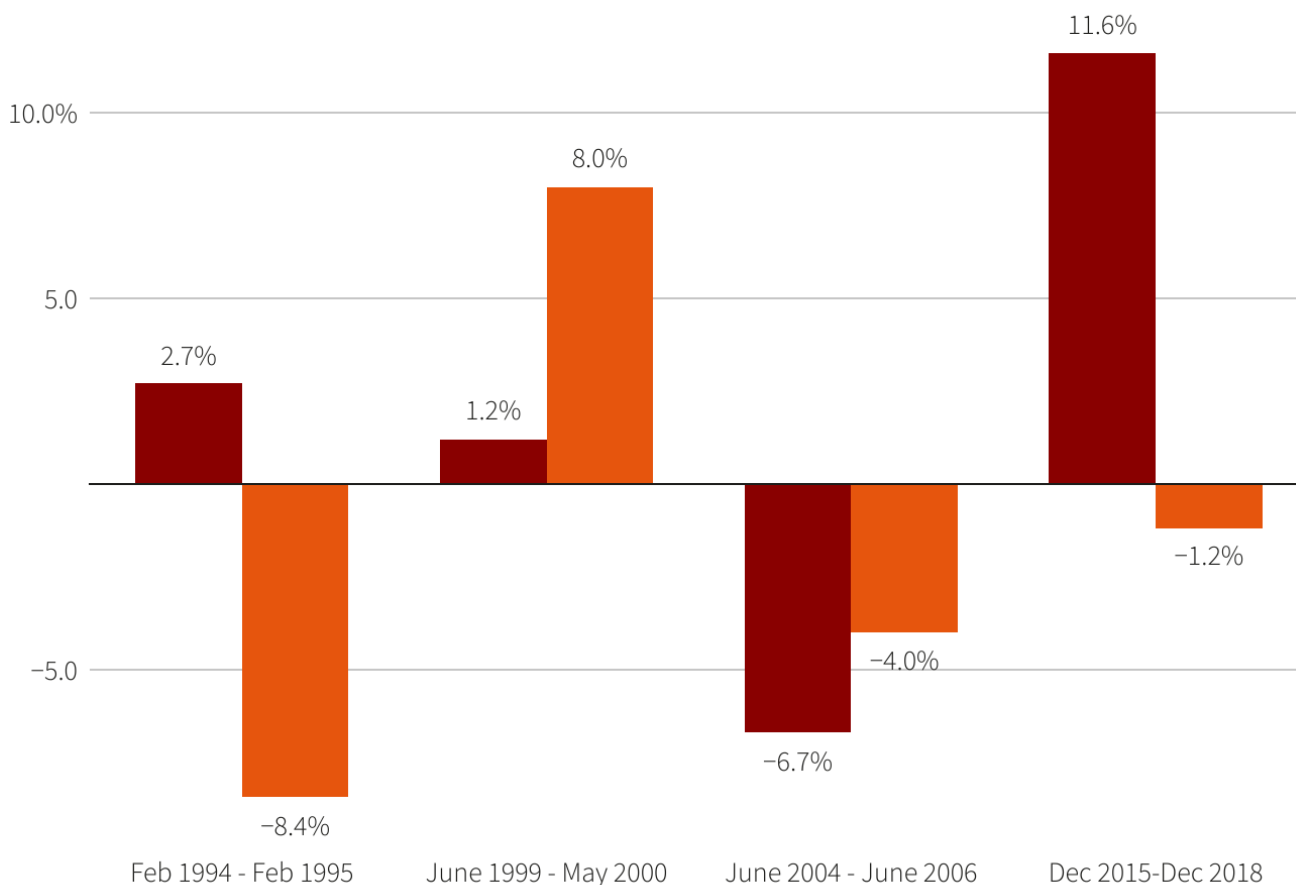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ed hiking regimes and the U.S. dollar

● Dollar index performance in the year prior to hikes (%) ● Dollar index performance during hiking regime (%)



Note: U.S. dollar index performance from the day of the first hike to the last day of a rate hike for each of the last four major hiking regimes

Source: Refinitiv Eik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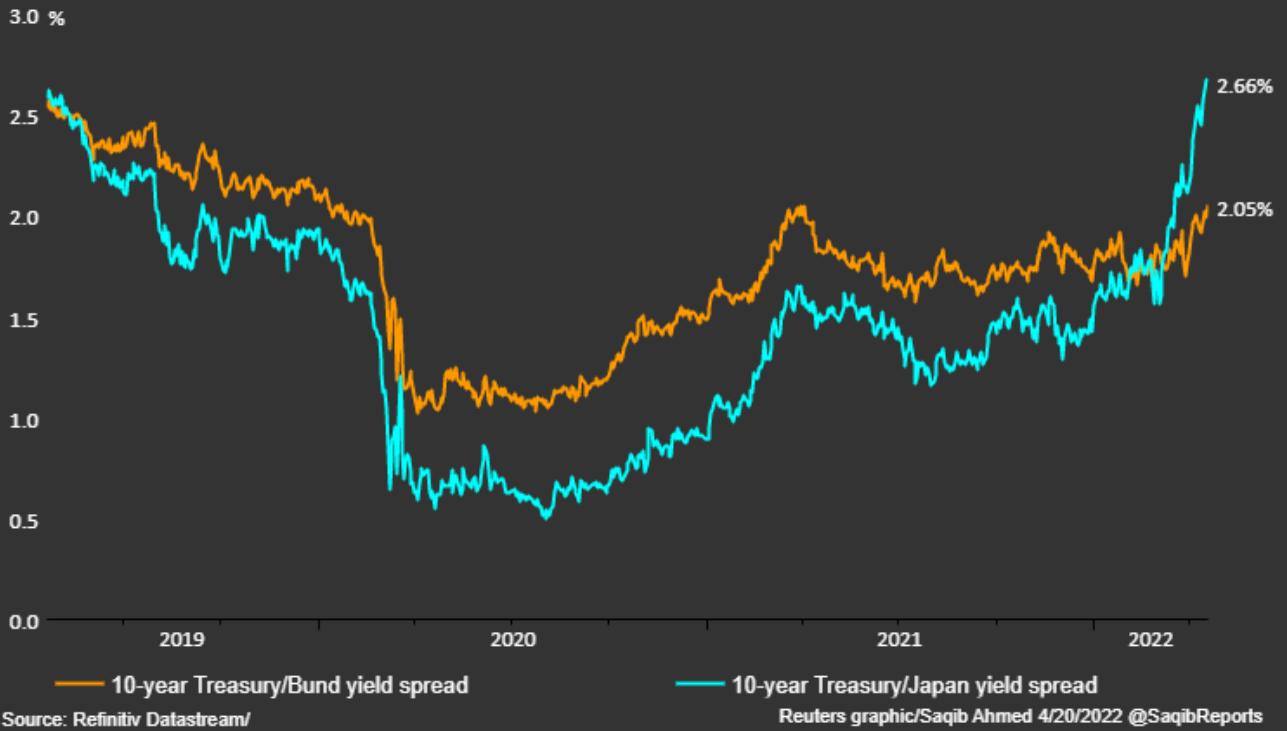
U.S. dollar index in rate hiking regime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dvantage dollar

The dollar continues to enjoy a significant yield advantage over the euro and ye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